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2.. 햇빛을 받는 곳마다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있는 우리 영혼은 남루합니다. 정욕에 이끌리다보니 신성한 불꽃은 꺼지고, 허위단심으로 살다보니 사랑의 샘은 말라버렸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으라 하셨으나, 우리 스스로 불평을 터뜨리며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키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잃어버린 근본을 되찾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흠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도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1:5-6	인도자
♠ 교 독 문	65. 감사절(2)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09. 논밭에 오곡백과	다함께
성경봉독	살후1:11-12	이재구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깊은 감사	김기석 목 사
거듭기도	다함께	

- 현신의 찬송 312. 묘한 세상 주시고 다함께
- 봉 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막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 찾은 자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증거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은총을 인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들과 더불어 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증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청파의 가을걷이	11월 기도의 밤
진행 : 김재흥 목사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구성실 장로	박혜경 권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홍순구	박규석	박혜경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이호원	김근중	안길상	최숙화	강순배

소리 없음에 소리를 듣습니다

온통 누우렁고 붉게 물든 것들의 세상입니다. 누우렁고 붉게 물든 것들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줍니다. 당당히 여름철 내내 억센 푸르름을 자랑하던 억새들도 흰 갈기를 휘날리고 있고요. 지천으로 피어 있던 영경귀들은 홀씨들을 바람결에 휘날리며 허영게 허영게 허공을 난무하고 있습니다.

홀씨들 날리는 모습 바라다보는 것 또한 즐거움입니다.

바람 닿는 대로 내려앉아 다음해에 지천으로 당당하게 피어나겠지요.

구름은 앞산 너머 높직이 걸려 있고요, 먹을 것 사방에 널려 있어 새들의 날갯짓도 경쾌해 보입니다. 똥 기운으로 즐기차게 뺏어나가던 호박줄기들에 매달려 있던 호박들도 풀들 숨죽이자 누우런 모습들을 당당히 드러낸 채 며느리들 내보낸다는 따가운 햇살을 즐기십니다.

여름 내내 푸른 고추 주렁주렁 매달아 우리 입맛을 돋우어 주던 고추들도 뿌리 뽑힌 채 마지막으로 붉게 물들고 있고요, 붉나무 붉은 잎들도 선정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이미 찬 기운을 내뿜고 있지만, 온 들판에 울리는 트랙터 소리와 이삭줍기 위해 뒤덮은 새들의 노랫소리가 바람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을은 우리들에게 늘 풍성함으로 다가옵니다. 눈으로 귀로 입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말이지요. 가을의 시끌벅적함은 다음 계절의 침묵을 예비하는 것이겠지요.

새벽 밤하늘 쳐다봅니다.

고요함뿐이지요.

낮의 시끌벅적함 때문에 더더욱 고요합니다.

소리 없음에 소리를 듣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때문에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생동감 있게 들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때문에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는 청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바람이 고마운 것은 햇살이 있기 때문이고요.

햇살이 고마운 것은 그들이 있기에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기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맙고 아름다워 해야지요. 허나 사람들은 제 아름다운 모습 먼저 보려 하지 않고 제 가지지 못한 것만 부러워합니다.

못 생긴 소나무 몇 그루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마을을 통과해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길 좌측으로는 나무들이 뺨뺨이 서 있어서 오르는 길이 제법 으스스합니다. 작업장 우측으로는 땅지는 않지만 물이 흐르는 작은 골짜기가 있어서 여름에는 탁족도 하고 겨울철에는 썰매도 지칠 수 있습니다. 골짜기 건너편으로는 다시 나무들이 뺨뺨이 들어서 있고요. 작업장에 앉아 있노라면 새 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에 제법 깊은 산중에 와 있는 것 같은 호젓한 맛을 느낄 수 있지요.

허나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그 나무들이 모두 베어져 없어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나무들을 심는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손을 빌지 않은 처음의 나무들은 자연스레 돌아나 땅과 햇빛과 바람의 힘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양쪽으로 우거졌던 산림은 뽕뽕 깎은 중고등학교 시절의 머리 마냥 을씨년스럽고 험하게 비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휘어지고 못 생긴 소나무 몇 그루가 남아 있었지요. 곧고 키 큰 나무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던 나무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나무들은 제 품 안에 새들을 깃들게 할 것이요, 제 뿌리에 물을 머금고 흙을 부여잡을 것입니다. 불품없고 쓸모 없지만 그 나무들도 나무여서 '있을 것은 있고 갖출 것은 갖추었으며, 알 것은 알고 볼 것은 다 보는' 나무였습니다.

-관화가 류연복, <<둥글어진다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중에서

산을 오릅니다. 내려와야지요. 길을 떠납니다. 되돌아와야지요. 손을 내밉니다. 거뒀어야지요. 사는 모든 일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 마/음/으/로/워/는/글

그렇겠구나

은석사銀石寺 뒷산 참나무 숲을 걷는데
산토끼 한 마리 깜짝 놀라 도망을 친다.
내 저를 어찌려는 마음 조금도 없거늘
무엇이 겁나 저렇게 도망이 급한가?

미안하다, 내가 산토끼였더라면
네가 그렇게 겁내지 않았을 것을.
내가 좀 더 작아지고 여위어져서
다람쥐만큼 몸이 가벼웠더라면.

그렇겠구나, 아주아주 작아져서
나비나 여치쯤 되면
아무한테도 겁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 또한 아무도
겁나지 않겠구나, 나비가
늑대를 겁내지 않듯이
세상이 참으로 가벼워지겠구나.
(이현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신장영 임영숙 한상필 인준영 정영민 선선우 구명자 권미숙 김중수
 이순정 김지유 윤선영 김일크 황지현 임영숙 정경례 영민고 선선우 박애주 권미희 권일복 김현복
 박홍재 이유선 박방환 황지현 임영숙 정경례 영민고 선선우 박애주 권미희 권일복 김현복
 장재영 김재영 박방환 황지현 임영숙 정경례 영민고 선선우 박애주 권미희 권일복 김현복

월정헌금:

김인걸 문영혜 박범희 박미영 박준희 이기분 박찬정 서정순 왕수명
 류건형 윤윤성 김윤정 이동천 이소순 이정근 이해동 최철수 왕권희
 하현철 최성애 이증자

감사헌금:

한상의 정영선 백혜숙 방문성 허경기 오정숙 김민정 123나오미선교회
 무명3

생일감사헌금: 김재환

100주년 기념사업헌금:

박옥식 이영순
 (100주년 헌금 누계-121,69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장 혜 숙		
베들레헬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안 정 숙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추수감사주일** : 기쁨과 고통이 갈마드는 인생이지만, 오늘을 경축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2. **오후집회** : 청파의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가을걷이 축제로 어울립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3. **청파햇빛발전소** : 질서 있게 햇빛 발전소 견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창조질서의 창문 하나가 이 햇빛 하늘 아래 열렸습니다.
4. **환경대학** : 중구용산지방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대학이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일시 : 11월 6일(화) ~ 11월 27일(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 **기도의 밤** : 11월 7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6. **신앙실천** : 마스크를 통해 접하는 고난의 현실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 식당 봉사 :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